

지역 엘리트 학교의 주변화

— 가모농림학교(加茂農林學校)로 본 근대 일본 중등농업교육과 지리적 위계

崔子明*

I. 서론	III. 가모농림학교의 승격과 승격교의 타지
II. 지역 엘리트 학교로서의 가모농림학교	이전
	IV. 결론

• 국문초록

1차대전을 전후하며 도시는 무한히 팽창하는 마법의 공간으로 보였고, 그 마법은 수도뿐만 아니라 현청소재지 같은 지방도시들에서도 구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東京나 新潟와 같은 대도시는 무한히 팽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도시의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체들이 모든 지역자치체에 들어서지도 않았다. 왜 현청소재지나 수도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향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려운가? 이 논문은 新潟현의 농업중등학교인 가모농림학교(加茂農林學校)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부분적인 답을 구한다. 이 학교에는 인근은 물론이고 니가타현 전역의 지주 아들들이 다니며 경작기술을 배웠고, 졸업생들은 지역사회의 재촌지주 엘리트로서 농업을 진흥하고, 때로 기업가로, 정치가로 비약했다. 나아가 이 학교의 동문들은 이 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이 승격으로 가모농림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 대체되며 폐지가 결정되자, 직장과 모교를 잃은 중등농업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이 반발하며 결국 가모농림학교가 부활하고 고등교육기관은 패전 이후 新潟市

* 성균관대 사학과 부교수

로 이전, 新潟大学の 농학부가 되었다. 지역 유지들이 중등교육기관과 결합하며 자리 잡은 가모초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작전이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좌초되었고, 오히려 현청소재지 니가타시에 고등교육기관이 추가된 것이다. 1945년 이후 전체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며 가모시와 가모농림학교의 위상은 점차 하락했다. 이 과정을 살핌으로써, 이 논문은 왜 소규모 지역자치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꿈이 실현하기 어려운지를 생각한다.

주제어 : 가모농림학교, 니가타대학 농학부, 중등농업학교, 고등교육, 지리적 위계

I. 서론

1차대전을 전후한 경제호황으로 소위 6대도시, 즉, 도쿄(東京), 요코하마(横浜),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고베(神戸)의 6개 대도시를 넘어 니가타(新潟)시와 같은 지방도시들도 비약적인 물류량의 증대와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지방도시 니가타는 항구의 개항(1869), 현청의 설치(1870), 니가타 기차역의 개업(1904), 니가타고등학교 설립(1919), 그리고 현재 니치로(ニチロ)의 전신으로 니가타에서 출항, 러시아 연해에서 조업했던 어업회사 쓰쓰미상회(堤商会)와 같은 기업체들의 설립으로 그 성장의 물질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니가타시의 인구는 1890년 4만 명을 웃도는 수준에서 1921년 10만 명을 넘어섰고, 이 도시는 현재 8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고 일하는 대도시가 되었다. 역사가 루이즈 영(Louise Young)이 지적했듯, 이 과정은 고등교육제도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수도로 진출하고 수도의 인재가 지방도시에서 활약하며, 수도의 발전이 지방도시에서 복제되는 형태로 촉진되었다. 동시대 관찰자들의 눈에, 1차대전을 전후하며 도시는 무한히 팽창하는 마법의 공간으로 보였고, 그 마법은 수도뿐만 아니라 현청소재지 같은 지방도시들에서도 구현되는 듯했다.¹⁾

그러나, 도쿄나 니가타와 같은 대도시는 무한히 팽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도시의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체들이 모든 지역자치체에 들어서지도 않았다. 정부관료들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작은 지역자치체를 끊임없이 합병하며 市를 만들었다. 1889년 37개 었던 일본의 시는 2023년 10월 현재 772개로 늘어났다.²⁾ 그러나, 수많은 시들은 1차대전 직후 일본인들이 예상한 도시의 무한한 팽창이라는 현상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니가타현 가모시(加茂市)의 인구는 1954년 정촌합병으로 가모시가 생긴 당시 3만 9천 명 정도에서 꾸준히 줄어, 2021년에는 25,441명이 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가모가 市라는 지위조차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1954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체 인구가 3만은 넘어야

1) Louise Young, *Beyond the Metropolis: Second Cities and Modern Life in Interwar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1~3장.

2) 「統計で見る日本」(<https://www.e-stat.go.jp/municipalities/number-of-municipalities>) 2023년 10월 15일 접속.

시(市)가 될 수 있었다.³⁾

왜 현청소재지나 수도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향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려운가? 이 논문은 니가타현립 가모농림학교(新潟県立加茂農林学校)라는 중등농업학교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부분적인 답을 구한다. 이 학교는 1901년 니가타 현청이 관할하는 중등농업학교인 니가타현립농림학교(新潟県立農林学校)로 니가타현 미나미칸바라(南蒲原)군 가모초(加茂町)에 세워졌다.⁴⁾ 이 학교에는 인근은 물론이고 니가타현 전역의 지주 아들들이 다니며 경작기술을 배웠고, 졸업생들은 지역사회의 재춘지주 엘리트로서 농업을 진흥하고, 때로 기업가로, 정치가로 비약했다. 나아가 이 학교의 동문들은 이 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이 승격으로 가모농림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 대체되며 폐지가 결정되자, 직장과 모교를 잃은 중등농업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이 반발하며 결국 가모농림학교가 부활하고 고등교육기관은 패전 이후 니가타시(市)로 이전, 니가타대학의 농학부가 되었다. 지역 유지들이 중등교육기관과 결합하며 자리잡은 가모초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작전이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좌초되었고, 오히려 현청소재지 니가타시에 고등교육기관이 추가된 것이다. 1945년 이후 전제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며 가모시와 가모농림학교의 위상은 점차 하락했다. 가모농림학교의 졸업생들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로서 모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시켰지만, 모든 가모농림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을 수도의 엘리트들이 정한 고등교육기관의 격에 맞는 엘리트로 격상시킬 수는 없었고, 농업의 비중이 떨어지는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가로막을 영향력은 그들에게 없었다. 이 과정을 살핌으로써, 이 논문은 왜 소규모 지역자치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꿈이 실현하기 어려운지를

3) 加茂市産業課, 『加茂市の統計』, 加茂: 加茂市産業課, 1971, 6면; 加茂市, 『加茂市のすがた』(令和3年度), 加茂: 加茂市, 2022, 7면. 1947년 지방자치법은 3만이 넘는 자치체를 행정단위인 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1954년 이 법이 개정되어 5만 명이 넘어야 시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촌합병을 장려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가들은 이 법의 특별규정을 만들어, 정촌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자치체일 경우 인구가 3만명이라도 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地方自治百年史編纂委員会編, 『地方自治百年史』第一巻, 東京: 地方自治法施行四十周年, 自治制公布百年記念会, 1992, 96면. 가모시는 인구가 5만이 안되었지만, 정촌합병으로 생긴 자치체여서 시(市) 지위를 인정받았다.

4) 이 학교의 이름은 1906년 니가타현에 농업학교가 추가로 설립되며 니가타현립가모농림학교로 바뀌었지만 학교의 프로그램은 1906년 이전과 동일하므로, 1906년 이전 이 학교를 지칭할 때도 가모농림학교로 부르겠다.

생각한다.

중등농업학교는 직업의 위계와 공간의 위계가 어떻게 결부되는지, 그리고 그 위계가 어떻게 도전받으면서도 온존하는지를 추적할 절호의 프리즘이다. 근대 일본의 교육자들은 농업인을 고등교육을 받은 농업전문가와 그렇지 못한 경작자로 구분 지었다.⁵⁾ 농업교육의 서열화 과정은 근대 일본에서 도시와 그 농업배후지의 공간적 위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직결했다. 일본 최초의 농업 고등교육기관인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은 수도 도쿄에 세워졌고, 중등농업학교는 각 현청소재지의 농업배후지들에 들어섰다. 중등농업학교의 교원들은 도쿄제국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들이었고, 그들의 학생들은 그 지역 지주들의 아들이었으며 학업을 마치고 대체로 고향에 남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두가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공간적 위계를 승인했던 것은 아니다. 가모농림학교의 경험을 통해 바로 이 농업배후지 엘리트들의 도전과 좌절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가 니디아 바누엘로스(Nidia Bañuelos)가 지적했듯이, 교육사가들은 주로 고등교육기관들에 집중한 나머지 중등 실업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았다.⁶⁾ 일본의 농업중등교육기관의 연구도 그 선구적인 미요시 노부히로(三好信浩)의 선구적인 저작들⁷⁾에서 단편적으로 포함된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등학교 당국이나 졸업생이 편찬한 자체 역사서 말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가모농림학교도 예외는 아니다.⁸⁾ 이 연구사적 공백은 고등교육이 공간 위계의 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 받고 또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치명적이다. 이 논문은 동창회보와 학교 행정문서를 충실히 수록한 이 학교의 백년사와 가모시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도시와 인구가

5) 최자명, 「근대일본 농업교육과 사회계급의 분화: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의 동경농업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435~462면. 미국사에서는 Alan I. Marcus, *Agricultural Science and the Quest for Legitimacy: Farmers, Agricultural Colleges, and Experiment Stations, 1870-1890*,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5, 제2장.

6) Nidia Bañuelos, "Why We Need More Histories of Low-Status Institutions,"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60, no. 2 (May 2020): 246-60.

7) 三好信浩, 『日本農業教育成立史の研究: 日本農業の近代化と教育』, 東京: 風間書房, 1982; 三好信浩, 『横井時敬と日本農業教育發達史』, 東京: 風間書房, 2000; 三好信浩, 『日本農業教育發達史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2012.

8) 原沢久夫, 『加茂農林とその伝統』, 新潟: 海口書店, 1979;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編, 『青海百年』, 加茂: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2012.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자치체의 공간적 위계가 근대 학교제도가 뿌리내리며 공고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Ⅱ. 지역 엘리트 학교로서의 가모농림학교

19세기 일본의 지도자들은 공업과 상업 못지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썼다. 1874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이끄는 내무성 관료들은 도쿄 신주쿠에 農事修學場을 설립, 농업기술의 이전을 도모했다. 1878년 경 이 학교의 운영자들은 영국의 농업전문가를 교원으로 고용하고, 고마바(駒場)에 넓은 땅을 사서 농장을 갖춘 뒤 학교 이름을 駒場農學校로 개칭했다. 1890년 이 학교는 도쿄제국대학의 농과대학으로 합쳐져, 일본에서 농업 분야 가장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곧 이들 농업전문가들이 활약할 무대가 마련되었다.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은 1881년 농상무성을 만들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삼았다. 또한, 19세기말 농상무성 관료들은 農事試驗場을 세워 농업기술자들이 “농산물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기대했다.⁹⁾ 1899년 정부는 이 시설을 모든 현에 하나씩은 세우기로 결정했고, 일본의 식민지에도 설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농업전문가들은 새롭게 설립될 농업중등학교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894년 문부대신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는 實業教育國家補助法을 발의, 당시까지 지역 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던 중등농업학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길을 열었다. 1890년대와 1900년대에 걸쳐, 68곳은 중등농업학교가 각 현당국의 경비로 일본 전토에 들어섰다.¹⁰⁾

이 과정에서 농업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의 위계에 수도와 지방이라는 지리적 위계와 더불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가 덧씌워지게 되었다. 농업교육기관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가 덧씌워지게 되는 원형적인 사건은

9) 農商務省農事試驗場, 『農事試驗場一覽』, 東京: 農商務省農事試驗場, 1900, 1면.

10) 三好信浩, 앞의 2000 책, 346면.

농사수확장에서 일어났다.¹¹⁾ 농사수확장의 설계자들은 이 학교에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予科와 専門科뿐만 아니라, 경작자를 훈련시키는 試業科를 두었다. 시업과의 학생들은 5반보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지주거나 그 아들이어야 했으며, 3년간의 훈련을 받고 고향땅에 돌아가 농사를 짓도록 기대받았다. 3년의 프로그램은 하루에 6~7시간을 농장에서 실습시간을 보내는 고된 과정이었다. 예과를 2년, 전문과를 3년에 걸쳐 훈련하고 농업전문가가 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여덟 시간 정도 실습을 하고 교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경작자 양성과정은 육체노동의 비중이 커 학생들이 불만이 컸던지 1878년 돌연 폐지되었다.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도 중등농업학교가 인기가 없었다. 니가타현립농학교는 1891년 폐지되었는데, 현 의회에서 “조악하고 큰 무용물”인 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¹²⁾

그러나, 경작자 양성교육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1886년 고마바농학교가 東京農林學校가 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은 그 부속 速成科로, 1890년 도쿄농림학교가 도쿄제대 농과대학이 되었을 때는 乙科로, 다시 1898년에는 実科가 되었다. 전술한 이노우에 문부대신의 국고보조 구상도 지방에서 중등농업교육을 계속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가모농림학교도 이노우에 문부대신의 국고보조사업이 낳은 부산물이었다. 1900년 니가타 현지사 가시와다 모리후미(柏田盛文)와 니가타현 視學官 유하라 모토이치(湯原元一)는 향후 5년간 니가타현에 몇 곳의 중등실업교육기관을 설립할 구상을 세웠다. 이들 기관 중 하나가 현립중등농업학교였고, 니가타 현당국은 그 부지로 가모초를 선택했다. 1900년 당시 직물업과 종이산업이 발달한 가모초는 이미 인구가 1만2천명이 넘는 큰 마을로, 그 지도자들은 미나미칸바라군에 세워질 현립중학교의 유치를 놓고 인구 1만4천의 산조(三條)초와 경쟁하여 밀린 바 있다.¹³⁾ 니가타현의 관료들은 가모초장의 중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신, 가모초에 농업 혹은 공업 중등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가모초의 지도자들은 농림학교를 선택했는데, 이곳에 지주들이

11) 이 과정의 상세한 분석은 최자명, 앞의 2018 논문.

12) 三好信浩, 앞의 2000 책, 379~384면. 이는 다른 전공보다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농업교육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다. 1945년 이전 근대 일본의 농업 고등교육기관들 중 사립 교육기관은 도쿄고등농학교(현재의 도쿄농업대학)을 제외하면 없었는데, 반면 의학, 법학, 공학, 경제학 등 다른 전공에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이 총생했다.

13)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4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¹⁴⁾ 구마모토 번사 집안의 아들로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을 졸업한 뒤 니가타 農事試験場の 기사로 일하고 있던 아카보시 도모테루(赤星朝暉)가 새로 설립된 가모농림학교의 교장을 맡았고, 아카보시가 초빙한 교원들을 갖추어 학교는 1903년 학생들을 모집하여 개교했다.¹⁵⁾ 아카보시는 도쿄제대농과대학 졸업후 오카야마현, 야마가타현, 이와테현에서 중학교 교원과 技師로 일하다가, 1898년 중등농업학교인 사가(佐賀)현립농학교장으로 영전한 바 있는데, 교원들 중 대다수는 이 당시 같이 일하던 인재들로 니가타현이 아닌 다른 현 출신자였다고 한다.¹⁶⁾

가모농림학교는 농업중등학교로서, 정부관청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일할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는 아니었다. 1903년 이 학교의 「규칙」에 따르면, 이 학교의 입학자는 14세 이상으로,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건강한 학생이어야 했다.¹⁷⁾ 1904년 아카보시 도모테루가 직접 작성한 가모농림학교의 敎訓에 의하면, 이 학교의 교육은 “정신적, 육체적 단련” 둘 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⁸⁾ 이 학교의 커리큘럼 또한 육체 노동의 실습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 학교 개교 이후 첫 3년간, 이 학교의 한 주 30시간의 수업 중 10시간이 실습이었다. 농장 실습은 課外 수업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모농림의 수업에서 농장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정도였다고 한다.¹⁹⁾ 1903년 개교 당시 부속 농장이 정비되지 않아 이 학교의 농장실습 수업이 이루어지던 장소는 인근의 사유 농장이었지만, 1904년 5월 학교의 농장이 정비되고 난 뒤에는, 학생들은 1년에 2,972시간 정도 농업, 잠업, 임업 실습을 학교 농장에서 수행했다.

14) 중등공업학교는 인근 마쓰무라초(松村町)에 세워졌다. 加茂市史編纂委員會 編, 『加茂市史』 上卷, 加茂: 新潟県加茂市, 1975, 1033면.

15)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2면.

16)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養心: 農林人物誌』, 加茂: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1993, 15면. 실제로 초대 기숙사 사감 쓰쓰미 미쓰오(堤三男)는 사가현 출신의 사가현립농학교 교원이었고, 교두(教頭)인 구사바 에이키(草場榮喜)도 삿포로농학교를 나와 사가현립농학교에서 일하던 교원이었다. 구사바는 가모농림학교에서 일하다가 시마네현립농림학교장으로 승진해서 잠시 가모를 떠났다가 다시 가모농림학교의 교장으로 복귀했다. 교장 임기를 마친 후에는 식민지 조선의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로, 나아가 기후고등농림학교 교장으로 일했다. 三好信浩, 앞의 2012 책, 15면.

17)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3면.

18)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24면.

19)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40면.

그들은 농장에서 쌀, 고구마, 과일, 채소 등의 작물에 관한 새로운 농법을 연습했고, 馬耕, 화학비료, 새로운 농기구를 이용한 기술을 연마했다.²⁰⁾

중등농업학교가 고등교육을 받은 농업전문가보다 한 단계 아래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학교였지만, 1945년 이전 중등농업학교는 지역사회의 엘리트를 받는 학교이기도 했다. 1945년 이전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은 일본에서 절반이 넘지 않았다. 1900년 가모초장 선거에서 가모농림학교의 유치는 당선자 후루카와 야스요시(古川保吉)의 공약이었고, 1902년 가모초회(加茂町会) 의원들도 가모농림학교 부지와 건설비를 현당국에 기부하자는 후루카와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²¹⁾ 가모초의 지도자들에게 이 학교의 유치는 성과였지, 모욕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1903년을 전후하여 가모초의 인구도 약간 늘었다. 1900년 12,000명이었던 가모초의 인구는 1905년 14,000명으로 늘어났다.²²⁾

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었고, 교육의 내용도 엘리트적 성격이 강했다.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했고, 여름에는 소풍을 다녔으며, 겨울에는 토끼사냥을 즐겼다.²³⁾ 학교 설립 이듬해인 1904년 이 학교에는 정구부, 야구부, 검도, 유도부 등 각종 스포츠클럽이 들어섰고, 1926년에는 등산부가 생겨났다. 이 학교의 유도관은 근사한 목조 건물이었다고, 유도부는 1929년부터 1941년 사이 도쿄농업대학이 주최하는 전국중등농업학교 유도대회에서 네 차례 우승하기도 했다.²⁴⁾ 1903년 수업료도 매달 70전으로 (현재 약 7만원 정도), 결코 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여름방학인 8월에 수업료가 없다고 해도, 일년에 77만원의 수업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쉽게 부담할 금액은 아니었다.²⁵⁾ 또한, 이 학교의 지도자들은 농사수확장에서 발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를 승인하지 않았다. 학교의 「교훈」에서 가모농림의 첫 교장 아카보시는 학생이 “체면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고 기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규정했다.²⁶⁾ 이 학교의 입학경쟁도 있었다. 1903년 4월에 치러진 첫

20)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42~43면.

21) 加茂市史編纂委員会, 앞의 1975 책, 1034~5면.

22) 加茂市史編纂委員会, 앞의 1975 책, 897면.

23)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3면.

24)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14, 168면.

25)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3면.

26)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24면.

입학시험에서, 이 학교의 입학정원이 60명이었는데 지원자 수는 88명이었고, 학교당국은 77명을 입학시켰다.²⁷⁾ 이 학교는 개교 첫 20년간인 1903년부터 1923년까지 총 1,661명의 학생을 입학시켰는데, 학생의 출신지는 219명이 진학한 학교 소재지 미나미칸바라군뿐만 아니라, 미시마(三島)군, 나카우오누마(中魚沼)군 등 니가타현 전역에 퍼져있다. 니가타현 바깥에서 진학한 학생들도 28명이 있었고, 니가타현 앞에 있는 섬인 사도(佐渡)섬에서도 80명의 학생이 입학했다.²⁸⁾

이 학교가 지역사회의 엘리트학교로 남아있는 한, 교격이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는 사실은 부각되지 않았다. 학생들도 농사수확장 시업과 학생들처럼 특별히 불만을 품을 이유도 없었다. 1950-60년대까지 니가타현 전역에서 지주의 자제들이 가모농림 학교에 입학했고, 이 학교는 지역 엘리트 사회의 구심점이었다. 사사게 히로카타(樺弘賢)는 1951년에서 1953년까지 가모농림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1958년부터 2003년까지 가모농림학교의 교사로 근무했는데, 그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부분 사족이 아닌 평민이었으며 중소지주의 아들들로 그 농장을 이어받았다고 한다.²⁹⁾

1914년과 1930년 가모농림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행해진 두 차례의 조사는 사사게의 증언을 뒷받침하지만, 1945년 이전에는 농장경영 말고도 다양한 직업적 선택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14년의 조사에 따르면, 가모농림학교의 탄생 이래 308명이 졸업했는데, 153명은 농장을 물려받아 경영했지만, 110명은 관리, 교원, 기술원으로 정부관청, 학교, 농회와 농사시험장에서 활약했다. 33명의 학생은 농업관계 고등전문 학교에 진학하거나, 제국대학 농과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했다.³⁰⁾ 당시까지 졸업한 1,286명의 가모농림 졸업생을 상대로한 1930년의 조사에서는 642명이 자기 농장경영, 262명은 관리, 161명은 학교 교원, 61명은 대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를 대신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경영인이 되었다. 학생들 중 드물게 교토제국대학이나 규슈제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나, 이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³¹⁾

27)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36면.

28)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37면.

29) 2020년 2월12일 필자가 사사게 히로카타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 당시 사사게는 고령이어서 동문 후배이자 니가타현립가모농림고등학교의 교원인 야마모토 요시타카(山本吉孝)가 사사게의 구술을 타이핑했다.

30)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88면.

31)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35면.

바뀌었다면, 대략 반 수 정도의 가모농림학교 졸업생은 농장을 물려받았지만, 추가적인 교육과 직업기회 또한 열려있었던 것이다.

1922년 이 학교는 농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를 부설해서, 간이중등학교 교원 또한 양성하기 시작했다. 농업보습학교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는 중학교, 고등소학교, 고등여학교,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간이중등농업학교로, 이 학교의 교원은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가 아닌 1년과정의 교원양성소를 졸업하면 될 수 있었다. 가모농림학교의 농업보습학교교원양성소는 1년과정으로 정원은 30명이었고, 농업보습학교를 확대하려는 정부는 이 학생들에게 한달에 10엔이라는 학자금을 지급했으며 단 졸업 후 만2년간 니가타현 안의 농업보습학교에서 가르칠 의무가 있었다. 교원양성소 생도모집 광고에 의하면 이들이 받을 월급은 약60엔이었다. 76명이 지원해서 선발된 30명 중 8명의 가모농림학교 졸업생이 보습학교 교원이 될 꿈을 안고 이 학교에 입학했다.³²⁾ 실제로 1910년대가 되면 가모농림학교 졸업생들 중 진학자의 비율이 높았다. 1918년 졸업생의 경우, 총 35명이 졸업했는데, 그들 중 16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했다.³³⁾

이 학교는 개교90주년을 맞아 출신자들 중 유명한 사람들의 열전이라고 할 만한 책을 편집했는데,³⁴⁾ 이 책에 실린 동문들의 프로필도 중소지주의 아들들이 어떻게 지역의 엘리트로 자리매김하는지를 말해준다. 이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들로, 가모농림학교에서 공부한 뒤 친지들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한 유지 역할을 이어받거나, 진학하여 중등학교의 교원이나 기업가로 활약했다.

하세가와 게이고로(長谷川啓五郎, 1893-1978)는 나카칸바라(中蒲原)군 나나타니(七谷)의 산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911년 가모농림학교를 제5회생으로 졸업했다. 그의 가문은 이미 지역사회 유지였다고 할 수 있다. 하세가와는 어릴 때 중규모 지주였던 부친을 여의고 숙부인 하세가와 사쿠지로(長谷川作次郎)의 후견으로 자랐는데, 그는 나나타니 촌의회 의원이었다. 또한, 그의 맏형인 하세가와 에이타로(長谷川栄太郎)는 봄에 농사비용을 빌려준 뒤 추수 이후 돌려받는 나나타니촌 신용조합의 창설자

32) 「農業補習学校教員養成所生徒募集」,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96~97면.

33)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90면.

34)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들 중 한 사람이었고, 신용조합의 간사였다. 에이타로는 자식이 없어 사쿠지로를 집안의 후계자(家督)으로 삼았고 가모농림학교에 보냈다. 가모농림학교 졸업 후 하세가와 게이고로는 잠깐 도쿄에서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나나타니촌 신용조합 서기로 취직했다. 이후, 신용조합의 전무이사, 조합장을 지내고, 1929년에는 나나타니촌의회 의원으로 당선했고, 1946년에는 공선제로 치러진 전후 첫 총장선거에서 당선했으며, 나나타니촌이 가모시로 합병된 1954년에는 가모시 시의회 의원이 되었다. 정치적 커리어 내내, 그는 물려받은 땅을 스스로 경작했다.³⁵⁾

6회 졸업생 오노자토 세이스케(小野里誠助, 1892-1950)도 중소지주의 아들로 가모농림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역의 엘리트로서의 커리어를 구가했다. 그의 부친은 기타칸바라(北蒲原)군 야스다(安田)촌에 약 60정보정도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다. 오노자토는 졸업 후(1912) 잠깐 이바라키(茨城)현의 히타치(日立)광산에 취직했다가 곧 귀향, 1920년까지 인근 실업보습학교인 히가시칸바라군립농림학교(東蒲原郡立農林学校)의 교사와 지역 청년단장으로 일했다. 이후 교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고향인 야스다촌으로 돌아와 낙농업에 주목, 젖소 농장을 운영했다. 가모농림학교에서 배운 구매조합의 이론을 배운 오노자토는 자신을 포함해서 1919년 젖소농장운영자 7명을 발기인으로 야스다촌의 낙농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로쿠노세(六野瀬)축우생산판매조합을 설립했다. 총 29명의 참여자에게서 3천엔의 출자금을 확보한 오노자토는, 버터와 크림을 생산하여 니가타, 나아가 도쿄, 요코하마까지 판로를 넓혔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에 관계했다는 이유로 공직추방되기는 했지만, 전후 잠시 총장으로 일하기도 했다.³⁶⁾ 그의 기업은 지금도 간다낙농(神田酪農)이라는 이름으로 성업 중이다.

11회 졸업생 다카노 이쿠타로(高野幾太郎)의 삶은 때로 중등농업학교 졸업생들에게 도쿄라면 고등교육졸업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직위에 오르는 것도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다카노는 가모농림학교에 1913년에 입학하여 1917년 4년 과정을 졸업한 뒤, 니가타 농사시험장에서 일했고, 곧 나카오우마(中魚沼)군 기사(技師)로 전출되었다. 수도 도쿄에서는 고등전문학교 졸업자들도 쉽게 안착하기 어려운 技師 직위에 중등농업학교 졸업생이 올라간 것은 특기할 만하다.³⁷⁾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이

35)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54~57면.

36)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59~60면.

배출되었지만 니가타의 각 군의 기사 자리를 모두 차지하지는 않았으며, 지역 중등농업교육기관의 졸업생들도 때로 기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14회 졸업생 이무라 슈헤(飯村修兵)의 경험으로 보듯, 가모농림학교의 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자신들의 모교와 같은 중등농업교육기관에서 교편을 잡을 수도 있었다. 이무라는 1900년 니가타 기타칸바라(北蒲原)군 가쓰즈카(葛塚)초에서 태어나, 1916년 가모농림 임업과에 입학했고, 졸업후에는 고등전문학교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鹿児島高等農林学校) 임학과에 진학했다. 가모농림학교는 갑종(甲種)농업중등학교로, 졸업생은 고등학교는 갈 수 없었지만 고등농림학교는 진학할 수 있었다. 1913년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 졸업 후, 그는 군마(群馬)현과 에히메(愛媛)현에서 기수(技手)로 일하다가, 1926년 모교 가모농림학교의 정교사인 교유(教諭)가 되었다.³⁸⁾ 이무라말고도 가모농림학교 모교출신 선생은 더 있었다. 일례로 아리모토 세이사쿠(有本誠作)는 가모농림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 후인 1908년부터 미나미우오누마(南魚沼)군 농회의 기수(技手),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의 말단연구원(雇)으로 일하다가, 1917년 문부성이 주관하는 중등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모교의 교편을 잡았다.³⁹⁾

이들의 활약상은 고향 근처의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았다. 가모농림학교 출신으로 전후 니가타 현지사(県知事)에 당선한 기타무라 가즈오(北村一男)는 가모농림학교 졸업생의 정치적 잠재력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1897년 미나미칸바라(南蒲原)군 쇼가와(庄川)촌의 유력자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음주로 가계는 어려웠지만, 기타무라는 백부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얻어 가모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주오대학(中央大学) 商學部に 진학했다. 기타무라는 졸업 후 역시 미나미칸바라 출신인 기업가 쓰쓰미 세이로쿠(堤清六)가 운영하는 쓰쓰미상회(堤商会)에 입사했다. 쓰쓰미는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러일전쟁에 어용상인으로 참여하여 만주에 다녀온 뒤, 러일전쟁이 끝난 후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이 얻은 러시아령

37)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71면.

38)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80~81면. 가모농림학교가 고등전문학교인 니가타 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자 승격교의 교수가 되었으나, 1949년 그 후신인 니가타대학 농학부에는 합류하지 않고 현립농림고등학교들의 교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했다.

39)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44면.

연안 어업권에 주목, 1906년 연어(鮭)와 송어(鱒) 조업에 뜻을 두고 니가타시에 쓰쓰미상회를 설립했다. 쓰쓰미상회를 창립할 때 그의 동업자는 러시아어를 익히고 캄차카 반도의 어업을 지망하던 홋카이도 하코다테 출신 상인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였는데, 1912년 히라쓰카는 곧 쓰쓰미의 누이동생과 결혼하여 이 사업은 가족 기업이 되었다. 이후 그의 회사는 통조림(缶詰)기술을 처음으로 수산물 제품의 대량 생산에 도입하고, 캄차카의 오조르나야(Озёрная)에 수산물가공공장을 세우며, 출항의 기점을 니가타에서 하코다테로 옮겨 1921년에는 니치로어업(日魯漁業, 현재 니치로)주식회사라는 회사로 기업들을 통합했다. 이 가문은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커져, 1924년 쓰쓰미는 중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전후에는 히라쓰카 쓰네지로와 쓰쓰미의 친동생인 와타리 시로(亘四郎)도 중의원의원이 되었다. 쓰쓰미와 히라쓰카와 일하며, 기타무라는 정계에 진출한 쓰쓰미 가문의 영향을 받아 정치가를 지망했고, 1947년 참의원의원, 1955년에는 현지사에 당선했다.⁴⁰⁾

Ⅲ. 가모농림학교의 승격과 승격교의 타지 이전

근대 일본 고등교육기관들은 도쿄에 가장 많았다. 문부성 관료들이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첫 학교는 거의 대부분 도쿄에 세웠던 것이다. 일본의 첫 번째 대학, 첫 번째 남성과 여성 고등사범학교, 첫 번째 고등공업학교, 고등상업학교 등은 예외없이 도쿄에 들어섰고, 그 이후에야 이들의 복제기관이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 세워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업교육은 하나의 예외인데, 첫 두 기관, 즉 농사수확장과 개척사농학교가 각각 도쿄와 삿포로에 거의 동시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19세기 일본 교육의 설계자들은 농업에 대한 지식과 인재를 독일과 미국 양국에서 수입했다.

40)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66~70면. 가모농림학교 졸업생들의 자교에 대한 자긍심은 전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2020년 1월 이 학교를 방문한 필자와의 대화에 임했을 당시 가모농림고등학교의 교사였던 아마카와 도시유키(山川敏幸)와 야마모토 요시타카(山本吉孝)는 모두 가모농림고등학교 출신이었고 졸업 후 대학을 나와 모교의 교편을 잡았다. 그들이 가모농림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역시 가모농림학교 출신인 조부와 부친의 강력한 권유였다고 한다. 그들은 당시 주중에 교편을 잡고, 주말에는 자신들의 농지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다.

고마바 농학교에서는 독일 농업과학자들이 일본 농업전문가 1세대를 양성했고, 삿포로(札幌)의 개척사(開拓使)농학교에서는 매사추세츠 농업대학(Massachusetts Agricultural College)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William Smith Clark)를 위시한 미국인 학자들이 교육을 주도했다. 이 두 개의 모델 학교들은 결국 도쿄제국대학으로 기준이 정해진 제국대학 교과과정을 공유하게 되었으니, 개척사농학교도 결국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으로, 1918년에는 홋카이도제국대학 농학부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농업 고등교육기관들은 이 두 학교를 모델로 지방 도시들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부관료들이 도쿄 바깥에 세울 복제기관의 소재지를 선정할 때, 그들은 대체로 현청소재지를 택했다. 일본에 처음 들어선 다섯 개의 고등학교들은 도쿄, 센다이, 교토, 가나자와, 구마모토에 세워졌는데, 이 다섯 도시는 모두 현청소재지였다. 이 다섯 도시는 1889년 정비된 지방행정제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인 부현(府県)과 가장 말단의 행정구역인 정촌(町村) 사이에 있는 중간 단위 행정구역인 市와 郡 중 도시인 市였다. 1889년 제정된 市制에 따르면, 인구가 2만5천명 이상이어야 市가 될 수 있었다.⁴¹⁾ 문부관료들이 공업과 상업 고등교육기관을 세울 때 그 위치는 주로 市였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더 많은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더 많은 시설을 정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일본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의 부지를 선정할 때, 거의 예외없이 지역자치체들 사이에 유치경쟁이 있었다. 정부가 여섯번째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제국의회에서 오카야마(岡山)현과 히로시마(広島)현의 대의사들이 경쟁적으로 유치를 주장하다가 결국 회장 바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⁴²⁾ 지역자치체들은 농업고등교육기관도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다. 일본 정부가 고등농림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을 때, 이와테(岩手)현의 회(県議會)는 고등농림학교를 유치하고자 1899년 정부에 청원서를 냈고 치열한 경쟁 끝에 현청소재지인 모리오카에 고등농림학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⁴³⁾

그런데, 농업 고등교육기관은 때로 1889년 당시 市가 아니었던 곳에 세워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일본 고등교육사상 이채로운 존재였다. 고등농림학교의 설립은 농촌

41) 地方自治百年市編纂委員会, 앞의 1992 책, 334면.

42) 神立春樹, 『明治高等教育制度史論』, 東京: 御茶の水書房, 2005, 제1장.

43) 作道好男, 作道克彦 편, 『岩手大学農学部75年史』, 東京: 教育文化出版, 1979, 74~75면. 우에다잠 사전문학교의 설치를 위해서 나가노현의회도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 作道好男, 作道克彦 편, 『信州大学農学部史』, 東京: 教育文化出版教育科学研究所, 1987, 17~20면.

의 행정자치체가 상당한 인구의 유입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1902년 모리오카(盛岡)고등농림학교를 세운 이래, 일본 정부는 1939년까지 총 13곳의 고등농림학교를 추가로 건설했다.⁴⁴⁾ 이 열세 곳의 고등농림학교들 중, 그 소재지가 市였던 곳은 다섯 곳뿐이다. 나머지 여덟 곳은 모두 시가 아닌 郡에 세워졌다.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교통과 통신, 기업체의 유치, 지가의 등락 등 많지만, 고등교육기관의 유치가 이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1910년 우에다잠사전문학교(上田蚕糸専門学校)가 세워진 우에다초는 이후 인구가 늘어나며 1919년 市로 승격했다. 우에다초는 나가노현에서 세 번째로 市가 된 자치체로, 그 이전까지는 나가노현에서 현청소재지인 나가노(長野)시와 동서일본을 잇는 교통의 요지 마쓰모토(松本)시만이 市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미야자키고등농림학교가 세워지던 1924년까지 미야자키현의 현청소재지인 미야자키초도 市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1924년 정촌합병과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와 함께 市가 되었다.

물론, 모든 지역자치체가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데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바로 市로 승격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도쿄고등잠사학교(東京高等蚕糸学校)가 세워진 사와노가와(澤野川)초와 교토고등잠업학교(京都高等蚕業学校)가 세워진 하나조노(花園)초는 이들 학교가 세워지기 전부터 잠업시험장과 잠업강습소와 같은 시설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들 자치체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으며, 이 자치체들은 1940년대에 도쿄시와 교토시에 각각 합병되었다. 기후고등농림학교를 유치한 기후현 나카(那加)초도 1940년에야 나카초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유치한 지역자치체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안겨주지 않는 국립고등교육기관은 지역자치체들의 지도자들에게 매력적인 이권이었으며, 그들은 경쟁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44) 이 외, 대학에 부설된 농업교육 전문부들이 네 곳 있었는데, 도쿄농업대학 전문부, 홋카이도제국대학 부속 농림전문부, 다이호쿠제국대학 부속 농림전문부, 니혼대학 전문부 척식과가 그것이다.

〈표 1〉 2차대전 이전 일본정부가 설립한 국립 고등농림학교들과 설립 당시 소재지의 행정 지위

	설립	학교명	설립 당시 소재지	설립시 소재지의 행정지위
1	1902	盛岡高等農林学校	岩手県盛岡市	市
2	1908	鹿児島高等農林学校	鹿児島県鹿児島市	市
3	1910	上田蚕糸専門学校	長野県小県郡上田町	郡(町)
4	1914	東京高等蚕糸学校	東京府北豊島郡澤野川町	郡(町)
5	1914	京都高等蚕業学校	京都府葛野郡花園村	郡(村)
6	1920	鳥取高等農業学校	鳥取県鳥取市	市
7	1921	三重高等農林学校	三重県津市	市
8	1922	宇都宮高等農林学校	栃木県河内郡平石村	郡(村)
9	1923	岐阜高等農林学校	岐阜県稲葉郡那加村	郡(村)
10	1924	宮崎高等農林学校	宮崎県宮崎郡宮崎町	郡(町)
11	1929	千葉高等園芸学校	千葉県松戸町 ⁴⁵⁾	郡(町)
12	1935	東京高等農林学校	東京府府中町	郡(町)
13	1937	東京農業教育専門学校	東京府東京市	市

가모농림학교의 설립자들도 이 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고자하는 희망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유하라는 1901년 니가타현에 농업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니가타현은 일본최초의 국립 고등농림학교 유치경쟁에서 이와테현에 밀렸고, 1902년 모리오카에 동북지방 국립 고등농림학교가 들어섰다. 유하라와 아카보시는 꼭 가모농림학교가 중등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이 학교를 장래에 고등전문학교의 교격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내비쳤다고 한다.⁴⁶⁾

1차대전 이후 일본 고등교육기관이 대대적으로 증설될 때, 가모농림학교 동문들 중 이 흐름 속에서 가모농림학교를 고등전문학교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모농림 동문인 이시즈키 히로타다(石附弘唯)는 1934년 동문회지인 『북월농림(北越農林)』의 아카보시 사망 추모 특집호 지면에 1918년 전후하여 자신이

45) 이 학교가 설립되기 3년 전인 1926년 군(郡)제가 폐지되었다.

46)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2면.

이 학교를 고등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자 노력했음을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이시즈키는 미나미칸바라의 대지주이며 니가타현 다액납세자였던 이치카와 다쓰오(市川辰雄)와 협의하여, 가모농림학교가 있는 미나미칸바라에 고등농림학교를 설립하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의 건의안을 현의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치카와는 가모은행(加茂銀行)과 니가타저축은행(新潟貯蓄銀行)의 중역이며 지역사회 정우회 지부의 핵심인물이었고, 이시즈키에 의하면 그는 숙부가 현정회 소속 현의회 의원이었다.⁴⁷⁾ 이시즈키는 한때 가모농림학교의 교장이었으며, 당시에는 지바고등원예학교의 교장이던 아카보시 도모테루를 도쿄에서 만났다. 당시 이시즈키는 가모농림학교의 승격운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냐고 아카보시에 물었으나, 아카보시는 현립학교이던 지바고등원예학교를 국립학교로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어 이시즈키의 청을 거절했고, 가모초의 지도자들도 이 승격운동은 단념했다. 회고록 말미 이시즈키는 1923년 나가오카고등공업학교(長岡高等工業学校)를 유치하며 번성하는 長岡市를 언급하며,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 물고올 바람직한 자극에 대해 상상했다. 그에 따르면, “나가오카시에 고등공업학교가 들어선 오늘” “도시의 번영”을 걸고 “(고등교육기관의) 쟁탈전이 자주 벌어지”는데, “혹시라도 고등농림학교가 설립되면”, “니가타현도 일본해 연안(裏日本)의 덴마크처럼 될”지도 몰랐다.⁴⁸⁾

가모농림학교의 지도자들은 고등교육기관 승격의 두 번째 흐름에 올라타 결국 승격을 이뤄냈다. 1931년 일본정부가 만주를 점령하자, 문부관료들은 농업 고등교육기관을 확충하고자 했다. 일단 문부관료들은 도쿄제국대학에 부설된 두 곳의 고등교육기관을 확충하여 독립시켰다. 이로써, 1937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實科가 도쿄고등농림학교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부속의 농업교원양성소가 도쿄농업교육전문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1942년 문부관료들은 오사카고등수의학교(大阪高等獣医学校) 등 부현립 농업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는 도쿄제국대학에서 분리한 두 학교와는 달리, 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며 설치되었고 운영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현정부였다. 중앙정부가 전쟁으로 재정 압박을 받자 고등교육기관의 설치주체를 지방정부로 미루며, 현 정부가 설치한 중등농업교육기관

47)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58~160면에서 재인용; 人事興信所, 『人事興信録』, 東京: 人事興信録, 1928, 1部, 181면.

48)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60면에서 재인용.

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⁴⁹⁾

1943년 6월, 당시 가모농림학교 동창회 간사장이던 이무라 슈헤이에 따르면, 동문들 중 일부는 가모농림학교를 고등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운동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전쟁 막바지, 가모농림 동문들은 승격에 필요한 재원을 거의 전부 스스로 조달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허가를 구했다. 1943년 10월, 가모농림학교의 졸업생들은 어떻게 하면 고등전문학교로 모교를 승격시킬 수 있을지 토론했고, 경비를 모금하여 이 새로운 고등전문학교에 농업, 임업, 농예화학 세 전문분야를 두기로 결의했다. 1944년 11월, 문부관료가 가모농림학교를 방문했고, 그 달 니가타 현의회는 현립농림전문학교 창설안을 통과시켰다. 곧, 가모농림학교 동창회 간사 고이케 사부로(小池三郎)가 모금 취의서를 작성하여, 2,300명의 동창들에게 배포했다. 당시 가모초장이며 중의원 의원이던 다시모 마사지(田下政次)와 가모농림의 교원이던 아리모토 세이사쿠가 이 모금활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니가타 현지사 마에다 다몬(前田多門), 니가타현 정촌장회 회장 사토 요시오(佐藤芳男), 지역구 중의원의원 다시모 마사지가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 창설후원회라고 불린 이 모금운동의 추진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가모농림학교 졸업생들이 필요한 경비를 채우자, 문부성은 1945년 2월 승격을 허가했다.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는 가모농림학교의 설비를 기숙사까지 모조리 승계했다. 수업은 1945년 5월, 패전 석 달 전에 시작했다.⁵⁰⁾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는 패전 직전 중등학교에서 승격된 다섯 곳의 고등교육기관들 중 하나였다.⁵¹⁾ 이 다섯 곳의 학교들 중,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와 나가노현립농림전문학교는 市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승격은 대공황 이후 부진하던 중등농업교육기관의 학생모집 문제에서 골머리를 앓던 가모농림학교 운영진의 고민을 해소해주었다. 1929년 대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촌에서 쟁의가 빈발하기 시작하자, 중등농업학교에 입학지원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가모농림학교도 1929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경쟁적인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⁵²⁾ 급기야 동창생들이 주도하여 교세를 회복하겠다고

49) 三好伸浩, 앞의 2012 책, 319~28, 336면.

50)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62면.

51) 나머지 네 학교는 오사카농림전문학교, 교토농림전문학교, 나가노농림전문학교, 그리고 에히메농림전문학교이다.

52)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24면.

치바고등원예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던 아카보시를 다시 교장으로 초빙하는 운동을 벌였고, 1931년 아카보시가 다시 교장직을 맡기도 했다. 중등학교는 많으나 고등교육 기관이 적던 일본 교육시장의 사정상, 승격은 학생모집의 걱정에서 가모농림학교의 운영진을 해방시켰다.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의 제1회 입학시험에서 지원자는 3,759명, 정원은 145명이었으니, 경쟁률은 25대1이 넘었다.⁵³⁾

그러나 이 승격은 가모농림학교의 지도자들이 바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1945년 중등학교로서의 가모농림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니가타농림전문학교의 신입생을 받자, 곧 사라질 중등학교와 신설 고등교육기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문부관료들은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들로 이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리를 채워나갔다. 니가타농림전문학교의 첫 교장은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로 피난을 위해 가모에 疎開된 니와 데이조(丹羽鼎三)였다. 니와는 도쿄제대 농학부 교수였지만, 그 직을 유지하며 소개지의 새 학교의 교장직을 겸직했다. 가모농림학교 교원들 중 이무라 슈헤이처럼 니가타농림전문학교의 교수로 채용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 가모농림학교의 남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 가모농림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승격을 모교의 폐지로 받아들이었다. 한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가모농림학교 학생들 중 밤에 니가타농림전문학교 기숙사 건물에 돌을 던지는 학생들이 있었고, 때로 가모농림학교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부채질했다.⁵⁴⁾

결국 가모농림학교 동창회가 이 갈등에 개입했다. 동창회의 지도부는 중등농업교육기관인 가모농림학교를 폐지하고 고등교육기관인 니가타농림전문학교로 대체하는 문부관료들의 원안을 지지했지만,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중등학교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1946년 1월, 이 사정을 안 교장 니와 데이조는 중등학교인 가모농림학교를 니가타농림전문학교의 예과로 만들 수 없는지 문부관료들에 상의했지만, 문부관료들은 이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한다. 동창회 지도부는 동창회 모임을 1946년 2월 개최하여, 이 두 학교를 모두 보존하는 것으로 하되, 둘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곧 가모초장 다시모 마사지는 동창회 지도부의 부탁을 받아들여 옆 동네인 무라마쓰(村松)초 당국과 협의, 무라마쓰초가 그 지역에 주둔하던 제30보

53)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62면.

54)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64면.

병연대 병영이 있던 자리에 니가타농림전문학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쟁이 진행되던 때 육군병사들은 모두 출정하고 병영은 少年通信兵学校の 건물로 사용되다가, 패전 이후 육해군이 해체되며 이 건물은 주인이 없는 상태였다.⁵⁵⁾

가모초 당국이 이 새 학교를 옮길 장소를 찾아내자, 가모농림학교 동창회측은 니가타 현지사에게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를 무라마쓰초로 이전하고, 중등농업학교인 가모농림학교를 부활시켜줄 것을 청원했다. 이 청원서에서, 가모농림학교 졸업생들은 패전과 식민지 상실로 농산물 수입처가 사라진 전후 일본에 얼마나 농업교육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간 가모농림학교를 졸업한 2,600명의 졸업생들이 얼마나 니가타현 농업에 기여했는가를 역설했다.⁵⁶⁾ 니가타현지사는 이 청원서를 받아들여 니가타농림전문학교는 무라마쓰초로 1946년 6월 이전했다.

이 이전으로 새로운 교육기관의 운영이 무라마쓰초의 변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니가타 농림전문학교가 이전했을 때, 가모농림학교 당국은 새 학교에 그 어떠한 설비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았다. 모금활동도 패전 직후 경제적 혼란 속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새 학교에는 교실에 책상도, 걸상도 없는 상태였고,⁵⁷⁾ 교장 니와 데이조 등 니가타 농림전문학교의 교원들 일부는 사비를 들여 학교의 설비를 샀다. 니와는 소개 생활을 마친 1946년 11월, 니가타 농림전문학교의 교장직을 사임하고 도쿄제대 농학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이어 이토 다케오(伊藤武夫)가 도쿄제대 농학부 임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1947년 니가타 농림전문학교 제2대 교장이 되었는데, 그는 니가타현 나가오카 출신자로, 니가타중학교와 도쿄의 제1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대 농학부를 졸업한 바 있다. 이토는 니가타 농림전문학교를 새로 설립될 新潟大学の 농학부로 만들려고 문부 관료들과 접촉했고, 문부관료들의 지지를 얻었다. 1949년 니가타현 관료들이 니가타대학을 세웠고, 이토의 뜻대로 니가타 농림전문학교는 니가타대학의 농학부가, 이토는 그 농학부장이 되었다. 그러나, 니가타 농학부는 더 이상 무라마쓰초에 머물지 않고, 니가타시로 옮겨갔다. 그리고 니가타대학 농학부의 학부장 이토는 교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면서도 니가타농림전문학교의 교원들을

55) 新潟大学二十五年史編集委員会 編, 『新潟大学二十五年史』部局, 新潟: 新潟大学二十五年史刊行委員会, 1980, 829면.

56) 청원서는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165면에 전제.

57) 新潟大学二十五年史編集委員会, 앞의 1980 책, 830면.

승계하지 않았다.⁵⁸⁾ 니가타농림전문학교 교수였던 이무라 슈헤이는 니가타대학 농학부 교수로는 부임하지 않았고, 1949년 이후 그는 1945년 이전 중등농업학교나 실업보습학교를 개조하여 설립한 현립고등학교들, 즉 니가타현립 미즈바라(水原)고등학교 등의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다 은퇴했다.⁵⁹⁾

물론, 모든 도쿄제대 출신자가 가모를 버리고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1946년 초 가모농림학교가 부활하고, 니와 데이조가 마쓰무라로 이전한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 교장 자리를 사임하고 도쿄로 돌아간 직후, 요시다 이와오(吉田巖)가 부활한 가모농림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요시다는 1903년 니가타현 나카칸바라군 무라마츠초에서 태어나, 나가오카중학교, 니가타고등학교를 거쳐 1930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사이타마현과 나가노현에서 중등농업학교 교원생활을 하다가, 1940년 교두(教頭)로 가모농림학교의 교원생활을 시작했다. 1946년 그는 승격교인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으나, 가모농림학교가 부활하자 이토 교장이 이끄는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를 떠나 1946년 11월 가모농림학교의 교장이 되었다.⁶⁰⁾ 요시다는 가모농림학교가 니가타현립가모농림고등학교로 간판을 바꾼 뒤에도 한참이나 교장으로 일했다. 그는 1959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이어 니가타현 교육위원으로 4년간 일한 뒤, 1963년 가모시 시장선거에서 당선, 1975년까지 12년간 가모시장으로 일했다. 기타오카의 현지사 선거에서처럼, 가모농림학교의 동창생들은 시장선거에서도 활약했다고 한다. 도쿄제대 출신자는 전후에도 한동안 중등농업학교를 지탱하는 유용한 자원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가모농림학교 졸업생들 중 일부가 추진했던 고등교육기관 유치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농업고등교육기관은 시(市)가 아닌 곳에서도 유치할 수 있었고, 1차대전 이래 가모농림학교의 졸업생들과 이치카와 다쓰오와 같은 미나미칸바라의 유지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가모농림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키고자 했다. 그들의 노력은 니가타농림전문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지만, 이미 지역 엘리트들의 구심점이었던 중등농업학교의 졸업생들과 교원들 다수는 자신들을 받아

58) 新潟大学五十年史編集委員会 편, 『新潟大学五十年史』部局編, 新潟: 新潟大学五十年史刊行委員会, 2000, 806면에 이 과정에서 벌어진 교장배척운동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 있으나, 갈등상황의 전모를 추적할 사료는 남아있지 않다.

59)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81면.

60)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1993 책, 34면·36면.

들이지 않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품지 않았고, 유치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지역엘리트들이 꿈꿨을 법한 가모초의 비약적인 인구증가와 경제발전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방향타를 잡은 이토 또한 가모농림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교원들을 승계하고 이 학교의 지역기반을 존중하기보다, 이 학교를 니가타시에 소재한 니가타대학 농학부에서 새출발하기를 원했다. 가모농림학교에 부설되어 있던 농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는 니가타대학 교육학부가 되어 역시 니가타시로 옮겨갔다.

IV. 결론

전후 일본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육기회가 확대되며, 중등농업학교가 지역사회의 엘리트학교로 군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급속히 해체되었다. 1945년 이후 이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고 1950~60년대 급속한 인구증가로 한때 이 학교의 졸업생 숫자는 한해 550명을 넘기도 했으나, 1980년을 기점으로 300명이하로 떨어졌고 2010년대에 접어들어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⁶¹⁾ 2019년도 졸업자 수는 남학생 87명, 여학생 92명이었다.⁶²⁾ 이러한 상황에서 가모농림학교의 운영자들은 엘리트 교육의 상징과도 같던 기숙사시설을 축소했다. 1969년에서 1971년에 걸쳐, 가모농림고등학교의 운영자들은 본래 세 개의 동이던 기숙사를 허물고, 교실 건물 하나를 기숙사로 개편했다.⁶³⁾ 1993년 기숙사는 드디어 문을 닫았다. 1975년에 기숙사 생도는 45명이 있었으나, 1980년에는 29명으로, 1985년에는 10명으로, 폐쇄 직전해인 1992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던 차였다. 초창기 이 학교는 니가타현 전역에서 지주의 자제들을 입학시켰지만, 1993년 기숙사 사감이 교장에 올린 「기숙사 폐쇄에 관한 청원서」에 따르면, 기숙사에 입사할 만큼 “먼 곳에 사는 학생(遠距離生徒)”는 단 한 명뿐이었고, 90년을 버틴 가모농림고등학교의 기숙사는 문을 닫았다.⁶⁴⁾

61)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227면.

62)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令和元年度学校要覧』, 加茂: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2020, 25면.

63)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204면.

64)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앞의 2012 책, 223면.

재촌지주의 아들로서 부모의 농장을 물려받을 학생들의 숫자도 전후 서서히 줄어들어 2010년대에 접어들면 극소수가 되었다. 2019년 당시 이 학교의 재학생은 553명이었는데, 전업농가 출신 학생은 13명, 농업을 겸업하는 가정 출신자도 82명으로, 농업에 전혀 종사하지 않은 가정 출신의 468명에 한참 못 미쳤다.⁶⁵⁾ 지주 자제들의 거점으로 가모농림학교가 다졌던 지역사회에서의 입지는 한 세기가 지나 사실상 사라졌다. 2019년도 이 학교를 졸업한 179명 중 가업을 이어받은 학생의 숫자는 3명이었다.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에 나선 87명의 학생들 중, 학교에서 82명의 일자리를 알아봐주었는데, 대체로 농업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니가타현에 있는 중소기업 공업, 유통업회사들이 많았다. 이들이 취직한 64개의 회사나 관청들 중 가모시 안에 있는 곳은 미나미칸바라 삼림조합, 산고마트(サンゴマート, 현재 폐업) 두 곳이며, 대부분은 조에츠(上越)신칸센이 정차하는 현청소재지 니가타시, 인구 9만의 산조(三條)시와 27만의 나가오카(長岡)시에 소재하는 회사, 관청들이었다.⁶⁶⁾

이 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중간단계로서의 가치도 높지 않다. 2019년 이 학교의 졸업생들 중 4년제 대학에 간 학생들은 총21명으로, 졸업생 총수 179명의 10%가 살짝 넘는 수준이다. 이들 21명 중 2명은 니가타대학 농학부로, 6명은 도쿄공예대학, 니혼대학, 기타사토대학 등 도쿄소재 사립대학으로, 그리고 13명은 니가타경영대학이나 니가타식료농업대학과 같은 니가타현의 사립대학들로 진학했다. 이들 중 농업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진학한 경우는 니가타대학 농학부에 진학한 2명, 니가타식료농업대학에 진학한 1명, 기타사토대학 수의학부에 진학한 3명으로 총6명이다.⁶⁷⁾ 농업의 위상이 하락하며, 농림고등학교 학생들도 전공을 살려 진학하는 경우도 줄고, 이 학교가 진학의 이점을 이용해 인기 학교로 거듭나기도 어려워졌다. 요컨대, 중등학교 졸업장이 희소가치를 잃고 일본의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교육 시장에서 이 학교의 지위는 꾸준히 떨어졌던 것이다.

지역 엘리트의 구심점이던 가모농림학교 교세의 장기적인 하락은 일견 학교와 가모초의 엘리트들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45년 이전 가모초는 애초부터 몰락할 예정인 마을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지도자들과 가모

65)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앞의 2020 책, 27면.

66)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앞의 2020 책, 25면.

67)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앞의 2020 책, 25면.

농림학교 교원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세기전환기 가모초는 산조초와 인구도 별 차이 없는 큰 마을이었다. 가모초장 후루카와 야스요시는 현립중등농업학교를 유치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했고, 수도의 고등교육기관인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의 권위와 인맥을 갖춘 니가타 농사시험장의 관리자 아카보시를 교장으로 초빙했다. 그들은 학교의 교격을 높이기 위해 1차대전 당시부터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1945년 초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로 가모농림학교의 교격을 높이는 데 성공했고, 대공황으로 지원자가 줄어드는 문제도 일거에 해결했다. 그리고 가모농림학교를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켰고 학교를 청산하는 데 반대한 것 또한 가모농림학교의 교원들과 그에 동조한 학생들이었다. 요컨대, 지역자치체와 학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가모초와 가모농림학교의 운명을 선택한 능동적인 행위주체였다.

수도, 현청소재지와와의 활발한 교류가 꼭 가모초와 가모농림학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도 결코 아니었다. 니가타현 문부관료 유하라 모토이치는 아카보시를 교장으로 초빙하고 그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가모농림학교의 기틀을 다졌고, 그들에게 배운 제자들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로 비약하고, 때로는 이무라 슈헤이처럼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거나 아리모토 세이사쿠처럼 중등교원 검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가모농림학교의 교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가모농림학교의 교원들과 가모시민들은 가모농림학교가 있던 나카칸바라군 출신으로 니가타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에 진학한 요시다 이와오를 가모농림학교의 교장과 가모시장으로 품었다.

그러나, 가모농림학교 교원들과 졸업생들의 영향력은 중등학교를 지키는 데는 힘을 발휘했지만, 중등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을 고등교육기관의 일원으로 승격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니가타현 출신자라도 수도 도쿄의 고등교육기관의 권위를 등에 업고 지역사회에 자리잡은 중등농업학교의 터전을 위협할 때, 가모농림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그들은 결국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 교장 이토가 문부관료들과 교섭하여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를 현청소재지 니가타시로 옮기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니가타시는 나카칸바라 지역의 인재를 도쿄제국대학으로 보내는 중간기지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토가 가모를 버리고 향하는 탈출구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모농림학교 교원들과 졸업생들은 가모농림학교를 부활시킬 수는 있었어도 스스로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었고, 결국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를 마을에서 내몬 이 선택은 중등학교 졸업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는 20세기 후반에 교세를 지키는 데 치명적인 악수가 되고 말았다. 요컨대, 가모농림학교 교원과 동창생의 모두가 수도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고등교육제도에 혜택을 보는 상황은 일시적이었다.

나아가, 가모농림학교와 가모초민들의 영향력은 결코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교육 시장에서 농업고등학교의 위상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막아설 수는 없었다. 니가타현립농림전문학교를 분리하여 니가타시로 내보낸 뒤에도, 가모농림학교의 학생들과 교원들이 자교의 위상이 떨어졌다고 즉각적으로 느꼈을 리는 만무하다. 이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로 성장한 동창생들의 영향력은 살아있었고, 가모농림학교의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동창을 니가타현지사를 배출했으며, 은퇴한 교장을 가모시장으로 당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과 손자들이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 기회를 찾고자 산조, 니가타, 나가오카, 그리고 도쿄로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지역 엘리트 학교로서의 가모농림학교는 중등교육이 니가타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떨어지며 교세를 잃어갔던 것이다.

참고문헌

- 加茂市, 『加茂市のすがた』, 令和3年度, 加茂: 加茂市, 2022
- 加茂市史編纂委員会 編, 『加茂市史』 상권, 加茂: 新潟県加茂市, 1975
- 加茂市産業課, 『加茂市の統計』, 加茂: 加茂市産業課, 1971
- 農商務省農事試験場, 『農事試験場一覽』, 東京: 農商務省農事試験場, 1900
- 三好信浩, 『日本農業教育成立史の研究: 日本農業の近代化と教育』, 東京: 風間書房, 1982
- _____, 『横井時敬と日本農業教育発達史』, 東京: 風間書房, 2000
- _____, 『日本農業教育発達史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2012
-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九十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養心: 農林人物誌』, 加茂: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1993
-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創立百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編, 『青海百年』, 加茂: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2012
- 新潟大学二十五年史編集委員会 編, 『新潟大学二十五年史』, 部局編 新潟: 新潟大学二十五年史刊行委員会, 1980
- 新潟大学五十年史編集委員会 編, 『新潟大学五十年史』, 部局編 新潟: 新潟大学五十年史刊行委員会, 2000
-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令和元年度学校要覧』, 加茂: 新潟県立加茂農林高等学校, 2020
- 神立春樹, 『明治高等教育制度史論』 (東京: 御茶の水書房, 2005
- 原沢久夫, 『加茂農林とその伝統』, 新潟: 海口書店, 1979
- 人事興信所, 『人事興信録』, 東京: 人事興信録, 1928
- 作道好男, 作道克彦 編, 『岩手大学農学部75年史』, 東京: 教育文化出版, 1979
- _____, 作道克彦 編, 『信州大学農学部史』, 東京: 教育文化出版教育科学研究所, 1987
- 地方自治百年史編纂委員会 編, 『地方自治百年史』 第一巻, 東京: 地方自治法施行四十周年, 自治制公布百年記念会, 1992
- Young, Louise. *Beyond the Metropolis: Second Cities and Modern Life in Interwar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 Marcus, Alan I. *Agricultural Science and the Quest for Legitimacy: Farmers, Agricultural Colleges, and Experiment Stations, 1870-1890*,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5
- 최자명, 「근대일본 농업교육과 사회계급의 분화: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의 동경농업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 Bañuelos, Nidia. “Why We Need More Histories of Low-Status Institutions,”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60, no. 2 (May 2020): 246~260

Provincializing Local Elites: Agriculture Education and the Making of Geographical Hierarchy in Modern Japan

Choi, Jamyung

In the eyes of the Japanese in the interwar period, the city seemed like a magical space that expanded limitlessly, and the magic seemed to operate not only in the metropolis but also in local cities, such as Niigata. However, big cities such as Tokyo and Niigata did not expand limitlessly. Nor did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business corporations appear in all other local communities as they did in the metropolis. Why was it difficult for small communities other than Tokyo or prefecture capitals to hos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vitalize their communit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experiences of the Kamo School of Agriculture and Forest, a secondary school of agriculture located in the Kamo Town, Nakakanbara County, Niigata Prefecture. Kamo leaders managed to host this school in their neighborhood for the prosperity of their community, and this school attracted sons of landlords in the entire Niigata Prefecture. Its graduates became local elites as cultivating landlords, and sometimes surfaced as entrepreneurs and politicians. Some of its graduates envisioned a rank upgrade of their alma-mater, and managed to transform this secondary school to a tertiary school, called the Niigata Prefecture Higher School of Agriculture and Forest. However, as the Kamo School of Agriculture and Forest came to be replaced by this new school, those who lost their jobs at the old school protested this decision, which culminated in the revival of the secondary school and the relocation of the new tertiary school in the Niigata City, the prefectural capital. In this process, the initiative of some graduates of this school to host a center of higher learning failed, only to enrich the prefectural capital by adding one mor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there. By looking at this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how local communities enmeshed their interests with local schools, sometimes resisting the incorporation into higher education system originating from the

지역 엘리트 학교의 주변화

capital city.

Key Words : Kamo School of Agriculture and Forest, Niigata University, Higher Education, Secondary Agricultural Education, Geographical Hierarchy

